

함평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설명회 개최

11개 적격업체 선정 완료...저온저장고 194동 지원 예정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함평군이 2023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6일 "지원 대상 농가 및 시공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 대상 농가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및 추진요령을 알리고, 시공업체 별 제품 특성 등을 안내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수·채소 등 농산물 저온 저장과 출하 조절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농가에 9.9㎡(3평)의 소형 저온저장고 194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저온저장고 부설시공 방지를 위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 모집 공고를 실시, 시공 능력 등이 검증된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안정적인 저온·유통시설의 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증



대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 지부,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업소 표창·장학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는 지난 2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김산 군수, 김경현 의장과 외식업지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음식문화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 국회의원 표창 송옥선(현경맛나곰탕), 김영희(무안명가) ▲ 무안군수 표창 이정미(유생촌 목포남약점), 김택순(서해헬빙음식점) ▲ 군 의회 의장 표창 박우정(시골집) ▲ 중앙회장 표창 전영범(중국관), 나순이(순이네 팔죽), 나기운(두암) ▲ 도지회장 표창 고순덕(호들이 감자탕)에게 수여했으며, 회원 자녀 9명에게 장학금 33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써 달라며 승달장학금 100만 원도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기부했다.

김산 군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식품 등 위생적 취급과 식품 안전에 특히 신경을 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 부각 및 물 절약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지역특화작목 과수(감) 정지전정 기술교육

영암군은 지역특화작목인 대봉감과 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수(감) 정지전정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론 및 농가포장에서의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강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조광식 박사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정지전정의 기초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고품질의 과일생산을 위한 정지전정 기술을 보급하였다. 이번 교육의 수료자는 정지전정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 지역 내 올바른 정지전정기술 보급의 전도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주관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지역 대표과일인 대봉감과 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가별 추가적인 정지전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사계절 꽃피는 신안군은 수목 유지관리도 특별해"

토양 척박하고 염분 머금은 바람 많이 불어 수목·꽃 심고 가꾸기엔 다른 지역 비해 3~4배 노력 필요

신안군은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을 목표로 각 섬 별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접목하여 특색있는 바다 위 꽃정원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산림·도시숲·정원분야의 훌륭한 사업 성과를 이루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육지에 비해 토양이 척박하고 염분을 머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 수목과 꽃을 심고 가꾸기엔 다른 지역에 비해 3~4배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사계절 꽃과 숲이 울

창한 신안군의 특별한 수목 유지 관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은 무지업과크와 임자 흥매화정원은 강한 바람과 모래 알갱이까지 날려 수목 활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으나 토양을 치환하고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압해도 천사대교의 애기동백길은 수목이

바람에 의해서 건조해와 동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ㄷ'자형 방풍막이 설치되었으며 육지와 다른 이색적인 가로수길 경관까지 연출되어 관광객의 호응 또한 얻고 있다.

또한, 식재한지 얼마 안 된 수목의 경우 추운 동절기 대비를 위하여 마대와 비닐로 수목을 감싼 방한작업을 하기도, 퍼플섬, 증도, 임자도 등에 실시하여 겨울철 한파와 꽃샘추위에도 수목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2023 상반기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개시

목포시가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은 도비와 시비 등 총 47억여원을 투입한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등 69개 사업에 83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삼학도공원 사계절 화단 조성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80명, 총 72개 사업에 915명이 배치됐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6일 시작해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8월 18일 마무리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원탁토론회

영광읍사무소 대강당서 아동·학부모·아동관계자 등 총 80여 명 참여



영광군은 지난 4일 영광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아동·학부모·아동관계자 등 총 8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영광군민이 직접 참여해 아동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토론회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 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참석자별 정책 제안 및 공개 투표를 통해 상위 10개 의제를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현장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아동·청소년·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심화하여 2024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